

지방의원 해외비교시찰 귀국 보고서



서대문구의회

목 차

I . 지방의회 해외비교시찰 개요 -----	1
II . 방문국가 주요 현황 -----	3
III . 비교시찰 내용 -----	6
IV . 방문후기-----	11

지방의원 해외연수 계획

지방의원의 역량강화 활동의 일환으로 해외 사회복지, 국내교류, 박물관 등 다양한 전통문화에 대한 폭넓은 견학을 통하여 폭넓은 지식 습득으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I . 추진방향

- ☐ 해외 지방자치 및 행정을 견학하여 국제화 능력제고
- ☐ 복지 및 문화시설 등에 대한 견학을 통하여 우리 구 복지정책에 대한 자문 및 역할 향상

II . 추진개요

- ☐ 연수기간 : 2011. 4. 21(목) ~ 28(목) 공식기간 【5박 6일】
- ☐ 연수국가 : 캄보디아(프놈펜)
- ☐ 참가의원 : 정안순(행정복지위원회)
- ☐ 주요일정
 - N.A.C.A Orphanage 사회복지 시설
 - 경북프놈펜문화센터
 - 캄보디아국립박물관
 - 문화유적 탐방

III . 연수효과

- 사회복지, 문화시설, 전통문화 등 폭넓은 견학을 통해 전문 및 전문지식 함양
- 두 지역간의 복지 등 공통사항에 대한 상호협력을 통한 문화교류 및 우호증진

지방의원 연수 일정표

일 자	방문지역	시 간	연 수 일 정	식 사
제1일 (4/21)	인 천	19:00	인천 국제공항 출발	석:기내식
	프롬펜	23:00	프롬펜 국제공항 도착 숙소이동	
			숙박 : 호텔 및 홈스테이	
제2일 (4/22)	프롬펜	전 일	■ 공식일정 ▷ 경북프놈펜문화센터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숙박 : 호텔 및 홈스테이	
제3일 (4/23)	프롬펜 양코르앗	전 일	■ 공식일정 ▷ 국립박물관 등 문화유적 탐방 ▷ 양코르앗 이동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숙박 : 호텔 및 홈스테이	
제4일 (4/24)	양코르앗	전 일	■ 공식일정 ▷ 타프롬 사원 등 문화유적 견학 -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숙박 : 호텔 및 홈스테이	
제5일 (4/25)	양코르앗	전 일	■ 공식일정 ▷ 빈민구제협회 고아원 지원조사 ▷ 헤브론 메디칼센터(한국인 의료봉사활동) - 사회복지 구제정책 조사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숙박 : 호텔 및 홈스테이	
제6일 (4/26)	프롬펜	전 일	자유시간(개인일정)	
제2일 (4/27)	프롬펜	전 일	자유시간(개인일정)	
제3일 (4/28)	프롬펜	23:50	▷ 주민편의시설 및 복지정책 조사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기내식
	인 천	08:00	프롬펜국제공항 출발 인천공항 도착	

※ 상기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방문 국가 현황[캄보디아]

국 명	캄보디아 왕국(Kingdom of Cambodia)
수 도	프놈펜(Phnom Penh)
독립일	1953년 11월 09일 (프랑스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위 치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의 남서쪽 (태국, 라오스, 베트남과 접경)
면 적	총 면적 181,040 km ² (남한의 1.8배)
인 구	· 전체인구 1,470 만 명 (2008년 기준) · 평균 인구밀도 1km ² 당 약 78명 · 인구증가율 : 5년간(2003~2008년) CAGR 약 1.8%
경 제	· GDP : USD 111억(2008년) · 실질 GDP 성장률 : 9.4%(2008년) · 1인당 GDP : USD 755(2008년)
언 어	Khmer
화폐	Riel : CR (CR4,192 = US\$1 : 2008년 평균)
종 교	불교 90%(1975년 이전까지 국교)
기 후	열대기후(우기와 건기로 구분) · 우기 : 5월~10월/건기 : 11월~4월



산업구조 : (2008) 서비스업 43%, 농업 31%,
제조업 26%

주요 수출품 : (2008) 섬유제품, 천연고무,
목재

주요 수입품 : (2008) 건축자재, 석유제품,
기계류

주요 부존자원 : 고무, 원목, 인광석

경제적 강점 : 고무, 임산자원 풍부, 관광자원

경제적 약점 : 열악한 인프라, 심각한 부정부패

국 명 : KINGDOM OF CAMBODIA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면 적 : 181,040km²(남한의 1.8배)
수 도 : 프놈펜(Phnom Penh)
인 구 : 약 1,470만명
인 종 : 크메르족(85%), 삼족, 코라족등
언 어 : 크메르어(공용어)

기 후 : 고온 다습한 열대 몬순(monsoon) 기후로 우기(5-10월)와 건기(11-4월)로 나뉜다. 우기 때는 하루에 몇 번 스콜이 지나가는 정도이나 후반 2개월 정도에는 많은 양이 내린다. 건기 때는 가끔 스콜이 내리기도 하지만 대체로 (상대적으로) 시원하다. 그러나 우기가 가까워 오면 기온은 급상승하며, 4월에는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기도 한다.

지리적환경

동남아시아의 동중국해로 뻗어나온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앙부에 위치한 캄보디아는 라오스, 태국, 베트남과 국경선을 접하고 있다.

북위 13도, 동경105도, 국토 중앙을 지나는 메콩강과 지류가 이루는 광대한 중앙평원이 있고 북쪽과 남서쪽에는 산맥이 뻗어있다. 티벳쪽의 히말라야 빙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메콩강으로 유입되어 비옥한 토양을 이루며 중앙평원의 북서부에는 메콩강의 유량조절지 역할을 하는 톤레삽(TONLE SAP)이라는 큰 호수가 있고 국토의 75%이상이 산림으로 덮여있다.

국민성

사회적 관습의 대부분이 인도나 불교의 전통에 기인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개개인의 생활보다도 중요시되어 개인적이 프라이버시나 그밖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개인의 행동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는 것을 당연시한다. 캄보디아인들은 일반적으로 부끄러움을 잘 타며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소극적이다.

1970년대 폴 포트정권은 고등교육을 받은 국민다수를 학살하고 추방하였는데 이것은 국민의 창조력과 국가의 기술수준에 큰 타격을 주었다. 캄보디아인들은 아직까지도 그 대량학살시대의 죄의식, 고뇌, 공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폴 포트정권시대에 가족중의 누군가를 잃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여서 피해의식이 강한 편이다.

화 폐 : RIEL(하지만 달러가 흔히 통용됨)

종 교 : 소승불교

주요지역

· 프놈펜(Phnom Penh)

프놈펜은 아시아의 이국적인 분위기와 인도차이나의 매력이 융합되어있는 곳이다. 메콩강(The Mekong)과 톤레삽(Tonle Sap), 그리고 바삭강(Bassac). 이 세 강이 합류하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캄보디아의 정치적, 경제적인 중심으로 114만 시민들의 터전이다.

또한 이곳은 서쪽으로 이국적인 앙코르 사원과 남쪽 해안의 해변, 북동쪽 지방의 정글로 통하는 요충지이다.

· 씨엠립(Siem Reap)

씨엠립은 앙코르 왕국의 근거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곳이다.

씨엠(Siem)은 태국을 일컫는 말인데, 씨엠립의 자세한 의미는 “태국에 의하여 점령된 곳”이라는 뜻으로 알려졌다. 600km²에 이르는 지역내에 모두 9세기에서 13세기에 이르는 100여개의 사원이 발견되었다. 씨엠립은 앙코르 유적이 복원되면서 관광객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도시에도 많은 발전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

이 도시는 앙코르왓에서 남쪽으로 약6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

고 있으며 각종 숙박시설이나 식당, 편의시설이 이곳에 밀집되어 있다.

주요시설 견학 내용

1. 고아원

시 설 명 : N.A.C.A Orphanage

규 모 : 지상 2층 단독주택 (약 520㎡)

위 치 : 프놈펜 돌꼭

수용인원 : 100명

운영주체 : 민간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지원 없음)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본 고아원은 캄보디아 신문사 솜복프사와 자매결연을 통해 후원을 받고 있으며 현재 한국인들이 고정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다고 함.

전체 고아들은 나이가 되면 학교에 보내지며 이들 학비조차 정부로부터의 지원은 없다고 함.

별도로 이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각자의 장기를 개발하게 해주어 압살라 댄스 공연 등을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함.

본 고아원 건물은 임대해서 쓰고 있다고 함.

방문기관 평가

고아원 시설은 캄보디아의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로 국가가 고아원을 보호시설로써 지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실태로서 외국인등의 도움으로 운영해가고 있으며, 시설장의 헌신적인 노력없이 시설의 운영목적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태임.





2. 경북 프놈펜 문화센터 (PGCT)

한국의 경주와 캄보디아의 앙코르왓이 자매결연을 통해 여러차례 전시회(관광 엑스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우정의 표시로 캄보디아 정부에서 토지를 제공하여 만들어진 본 건물은 경북도에서 투자하여 최신식 철골조로 지어졌으며 건물을 일부는 대구 경북 생산품을 알리는 전시장 및 경주를 알리는 전시장. 그리고 캄보디아를 알리는 전시장으로 이루어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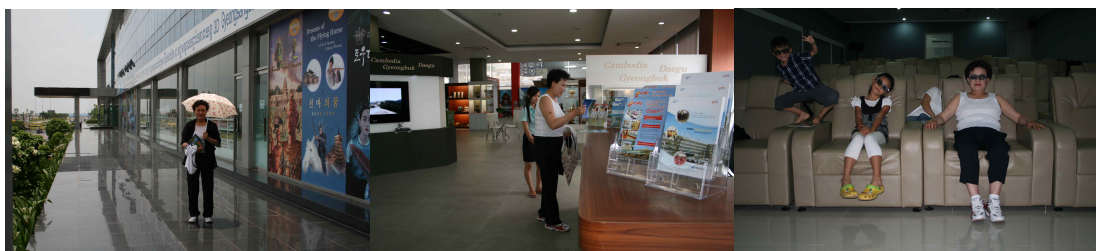
특히 3D 극장을 설치하여 하루 4회 무료 관람을 하고 있음.

방문기관 평가

입지가 프놈펜 중심지여서 좋았고 건물 또한 최신식 한국기술로 만들어진 건물이어서 좋았음. 다만 방문 시간이 오후 1시였는데.. 우리 일행이 아닌 또 다른 방문객이 많이 없어서 좀 아쉬웠

으며 3D 영화는 입체화면이라 흥미를 끌었지만 프로그램이 단순하게 준비되어 있었던게 좀 아쉬웠음.

경북도에서 캄보디아와의 Friend ship으로 만들어진 본 건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30년 무상임대를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받아서 건물을 짓고 문화센터공간 외에 나머지 2/3부분은 임대사업을 통해 건물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기도 했음.



3. 국립 박물관

캄보디아 프놈펜 왕궁 옆에 붙어있는 국립 박물관은 약 1200년 전 국가의 보물부터 200년전 왕실의 물건까지 다채롭게 보전이 되고 있었음.

왕과 신들의 석상들이 많이 보였는데 아쉬운 점은 약 1200년 전의 석상이 간단하게 외부와 노출되어서 있었고 방문객의 어떤 실수가 있을시 석상은 밑으로 떨어져 깨질 것 같다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음. 관리실태가 좀 많이 허술 했으며 조속히 개선해야 될 캄보디아의 숙제임.



캄보디아 방문 후기

캄보디아 하면 왠지 공산주의 국가 또는 내전중인 국가로 외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캄보디아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우리나라의 발전을 본보기로 삼아 지방에서는 한국으로부터 새마을운동을 전수 받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아울러 예전 한국이 6.25전쟁 후 어려웠던 시기에 한국으로 무상으로 쌀을 원조해준 원조국가이기도 하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와 같은 내전이 있었던 나라이다.

1975년 폴팟 정권에 의해 공산주의로 변화를 시도했었고, 약 4년 정도의 내전으로 인해 많은 것들을 잃었다. 그때 당시 인구 600만에서 200만명이 학살을 당했으며, 이들에게 그당시의 아픔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다.

이런 아픔은 한국사람들 정서에 남아 있는 것이어서 더욱 더 연수 중 가슴에 남아 있었다.

캄보디아는 젊은 나라이다.

폴팟정권 이후 많은 지식인 층이 학살을 당했고, 그 이후 태어난 세대들이 인구의 65%나 된다. 그중에서도 20대와 30대가 인구의 30%가 넘는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나라임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한국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으면서 특히 한국 건설회사들의 활약을 거리에서 느낄 수 있었다. 아쉬운 것은 한일건설이 워크아웃 되면서 골드타워 42는 31층 골조공사를 마친 후 현재 8개월째 공사가 멈춰서 있다.

그 외에도 포스코건설, 한일건설의 캄코시티, 엠코건설의 프놈펜 타워 21층 등 자랑스러운 한국의 브랜드들이 캄보디아 시내에서

쉽게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웠다.

자동차 또한 한국차들이 많이 보이며. 다만 캄보디아의 시내 교통 상황은 별로 안 좋게 느껴졌다. 교통질서에 대한 교육도 덜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였고. 많은 오토바이들이 무질서하게 도로를 달리는 것 같아보이는데.. 신기하게도 교통사고는 한 번도 목격을 못했다.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는 것 같았다.

캄보디아 사람들의 해맑은 웃음은 정말 순수함 그 자체였다. 다니는 중 만나는 사람들은 그리 바쁘지도 않았고. 가진 것은 별로 없었지만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큰 것을 가진 것 같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게 바로 행복지수가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었으며 연수 내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었다.